

WHEN THE YEAR 2000 COMES

Autumn/Winter, 2019 | 손현지

page 1 of 4



photographs: KUKFEGALLERY



WHEN THE YEAR 2000 COMES

사공간을 넘어 세상을 엮는 예술가,
양혜규의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

writer SON HYUN JI

084



1



2



3

"저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간, 우리는 로케트를 타고 멀리 저들 사이로 날으라..." 홀라타오는 노랫소리를 따라 들어선 갤러리에서 얼굴을 붉게 칠한 양혜규가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아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과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시도해보았다는 작가. 그는 자신을 향한 기대감을 만족시키기보다 양혜규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전시의 문을 열었다.

9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저기 2000년'이 오면'전은 서울과 베를린을 기점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양혜규의 전시회로, 삼성미술관 리움 이후 4년 만에 열린 네 번째 국내 개인전이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독일로 향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나이의 또래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음을 깨달았죠. 그렇게 '시간', '공간', '문화' 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다. 그는 시간, 공간, 문화, 사회적 주제에 대해 다원적이고 주관적으로 접근했고,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집약적인 이야기를 담아 상상과 연대의 공간을 만들었다.

양혜규의 작품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전시 역시 그렇다. 하지만 작가는 길잡이를 먼저 제시하며 관객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사유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갤러리의 입구에 서 울려 퍼지는 것은 가수 민해경이 1982년 발표한 노래 '저기 2000년'이다. "전시명의 모티브로도 사용했어요. 노래는 미래를 향한 낭만적인 희망을 담고 있지만, 관객은 노래 속 미래의 시점이 19년이나 지난 지금에 위치해서 과거의 희망을 들켜, 2000년이라는 시간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유행가 안에서 복합적인 시간을 보았고, 관객 역시 노래에 담긴 정서를 더듬으며 시간을 다각도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모물산>(1977년으로 추정)이 보인다. 홍보 이미지도도 공개된 이 작품은 유년의 작가가 두 동생과 함께 그린 그림. 시조새가 날아다니고, 도깨비가 등장하는 크레파스 수채화에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공간이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로 재현되어 있다. 노래와 그림이라는 두 개의 시창각 기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저마다의 향수를 불러오며 전시의 결을 일깨우는 것이다.

본 전시는 명명된 작품뿐만 아니라 대지의 내용과 음향, 안개와 빛 등 다감각적 요소로 가득하다. 동원적인 공간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담기는 것은 전면을 감싼 벽지 작업. 양혜규는 2011년 미국 아스펜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 '축지

법(The Art and Technique of Folding the Land)'에서 처음 벽지를 만들었다. "축지법은 땅을 접고 펼치며 상당한 양을 이동함을 뜻해요. 이를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 생각의 전환이라 여겼고, 벽지 위에 시공간을 담아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배양과 소진>(2018)은 이교도적 전승 문화의 흔적과 근현대 이후 융성한 하이테크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아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작가는 가상의 향나무, 무지개, 양파, 마늘, 의료 수술 로봇, 방울 등 다양각색의 사물들을 병치하고 배열해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지역적 경계를 넘어 과거와 현재, 기술과 문화, 자연과 문명을 융합했으며, 공간의 4면을 모두 감싸서, 배양되고 전개된 후 소진되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적인 구조까지 그려냈다.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세소리가 들린다. 30분가량 이어지는 이 음향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의 지도자가 도보다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의 중계에서 추출한 것이다. 작가는 일곱 시간의 시차가 나는 독일에서 이 중계 장면을 보았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공간이 모두 다름을 상상했어요. 두 지도자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갑자기 흐르던 정적의 순간에는 완전히 압도되었죠.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카메라

- 1 양혜규, 양동규, 양순규, 《부울산》, 1977.
- 2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회 전경. ©인천호
- 3 양혜규 2018년작 《슬프릿 동차동차》— 일방체
8나 배신 입방체 위에 6단위 입방체,
오른쪽은 《슬프릿 동차동차》— 열린 기하학적
구조물 2-2, 1-1 위에 5단위 입방체. ©인천호
- 4 국제갤러리 3관(K3)에서 열린 양혜규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의 전경.



4

의 소리와 발소리, 색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담긴 음향을 통해 청각적 입체감을 더함과 동시에 자연이라는 공간에 담긴 인간 사회의 서사와 정치적 복선을 재고했다.

양혜규는 조각가로서 재료를 다루면 다룰수록 더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된다고 말한다. “기하학과 구(球)는 항상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처음에는 수학자들이 생각하듯 무한한 이미지를 그렸고, 최근에는 이 요소를 생물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발견은 바닥을 채우는 장기관과 김볼로 표현된다. 죽어 비틀어진 격자는 벽을 타고 오르며 벽지와 조우해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잇는 다중 영역으로 상정되고, 그 위에는 대지의 향을 주입한 김볼이 놓였다. “작업실에서 우연히 김볼 위에 앉아봤어요. 끊임없이 구르려 하는 구체 위에서 자신이 무의식중에 균형을 잡으려는 것을 느꼈고, ‘구를 신체와 관련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세 가지 크기의 김볼은 장기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관객은 이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작품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경험은 《슬프릿 동차동차》(2018-)에서도 엿보인다. 공간 중앙에 자리한 이 순백색의 작품은 작가가 기준에 진행해온 블라인드 작업에 동적 요소를 더한 새로운 동작 연작,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인 솔 르윗의 입방체 구조를 확장시켰던 《솔 르윗 뒤집기》(2015-)와 조각물을 입듯

이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 이를 움직이는 《의상 동차동차》(2011-)가 혼합되었다. 르윗의 모듈 구조를 기립시키고, 바퀴를 달아 외부에서 조종이 가능하게 했는데, 두 명 이상이 함께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천장에 매달린 네 점의 《소리 나는 운동》(2019) 역시 참 여형 작품. 방울을 전면적으로 사용한 《소리 나는 조각》(2013-) 연작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존에는 없던 손잡이, 인조 짚 등을 추가로 접목했다. “방울은 다양한 사회 구조에서 기능적, 제의적 부류의 매개체로 쓰여왔어요. 방울 소리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일깨우며,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 공예와 대량생산으로 치환되는 문화와 산업의 결합을 형용해요.” 매달린 조각의 무게를 관객이 손으로 회전시킬 때 작품이 활성화되며, 방울들이 침묵과 부동의 상태를 소리와 호출로 확장시킨다.

공간의 한편에는 비시각적 작업인 《융합과 분산의 연대기 - 뒤라스와 윤》(2018)이 텍스트 묶음으로 비치된다. 이는 양혜규가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의 연대기를 주편적 관점에서 교차 편집한 것으로, 이형조합에 대한 그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두 사람은 극적, 성별, 성격 등 개인적인 모든 것이 달라요. 하지만 시대나 역사 속에서 구조적으로 닮아 있죠. 각각의 인물보다 이들의 조우에 주목했습니다. 인물들에 대

해 공부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게 돼요.” 그는 윤이상이 북한 방문 당시 접했던 강시대묘의 고분벽화 사진도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영상’(1968)의 연주회를 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에서는 양혜규의 독특한 어법을 볼 수 있다. 그는 일상적인 어휘를 특유의 반복과 상호 교차, 혼성으로 뒤엎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억을 되짚거나, 집단적 의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행가, 어린 시절의 그림, 김볼, 페이스 페인팅까지 처음 사용해본 것이 많아요. 완벽히 파악한 채 작업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그의 작품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한다.

양혜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학적 합리성과 자본주의가 소거한 ‘수궁’과 ‘자연’의 가치, 사본적 영역을 비롯해 야만 의 역사가 펼쳐한 ‘원시 문화’, 인간 세계의 산물인 시스템이 소외하고 고립시킨 ‘정치 사회적 인물과 공간’을 복습적으로 느끼고, 폭넓게 바라보길 권유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의 작품이 어렵다는 투쟁 아닌 투쟁에는 이렇게 화답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술과 창작을 쉽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쌓이며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신비로운 것은 신비롭게 남겨주세요!” K